

# 개구리는 인간사 '희노애락' 노래하네

김양수 작가 '유년동행'... 8월 2일부터 갤러리 한옥서



김양수 작가의 유년동행

## 자신의 역할 묵묵히 해내는 개구리 인간군상 다양한 모습 비유

개구리는 연밭 위에 올라 피리를 불었다. 또 한상 흐드러지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늘어진 모습을 보였고 탈춤을 추며 한 바탕 인생을 즐기기도 한다. 연못 위 개구리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 자체를 온몸으로 보여준다.

김양수 작가의 유년동행(幼年同行)이 8월 2일~9일 종로구 화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어린시절 추억의 개구리에서 시작된 개구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유년동행'을 만들어냈다.

"개구리나 두꺼비는 복을 가져다준다

는 의미가 있어요. 대중적인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의 한 자락을 개구리의 모습에 담아보았습니다"

작가는 전남 진도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년시절 새벽이슬에 옷깃을 적시며 소에게 풀을 먹였고 풀숲에서 숨어 있는 개구리와 벗이 되곤 하였다. 하지만 당시 풀이 많이 아팠던 작가는 단 백질 섭취를 위해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그로 인해 병이 나왔다고 한다. "개구리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참회를 했죠. 내가 먹은 개구리를 그려 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가는 개구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다고 전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과 닮은 개구리는 우리들에게 법문을 하는 듯한다. "한날 양서류에 지나지 않는 개구리는 평생 빛을 보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고귀함에 감사할 줄 아는 안목을 지녀야 비로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개구리는 말해주는 듯해요."

어느 한 사람 눈길 주는 이 없어도 개구리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구리는 우리에게 더 없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김양수 작가의 화폭 위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티베트와 네팔을 돌며 여행을 하고싶다는 작가는 오늘도 묵묵히 명상을 통한 그림 그리기에 전념하고 있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 108 번뇌 벗어나면 텅빈 비움의 충만이...

통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8월 8일까지



통척 스님

"짧지 않은 시간 공들인 작품들을 햇빛 속에 내어 놓았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동안에도 분별 나는 선(禪)으로 가는 길에 서 있었습니. 때론 무아의 경지를 말하고 싶었고 때론 우리 삶의 형태 역시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에 내놓은 작품들은 수행의 연장선에 분명합니다."

2013년 통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이 8월 8일까지 양평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열 여덟으로 가는 세상'을 비롯해 '사랑하는 마음도 쌓아두면 무겁다네' 등 52점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스님의 전시 제목이기도 한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은 두 개의 원과 9개의 점으로 중생의 번뇌를 이야기한다.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이 더해지면 18경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분별이 생겨나고 삼생으로 이어지면 108번뇌가 됩니다. 이런 인간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육의 또다른 발음이기도 하죠."

스님은 이를 통해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꼬집으며 모든 것을 비워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니 너도 나도 성형

수술을 하잖아요. 육근 육식 등에 이끌려 사는 현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성형수술이 아닐까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번 작품은 이런 열매임에서 벗어나 비움의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담은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달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도 서정적인 색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민들레 흙씨를 관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민들레는 씨앗이 낙하산처럼 요묘하게 퍼져나가잖아요. 바람 비 눈 모든 자연이 민들레를 키우죠. 이처럼 세상에는 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꽃 하나에도 심오한 자연의 뜻이 담겨져 있죠."

'보이는 것' 집착하는 대중에게

몸·마음 살피며 명상에 이르길 '발원'

18경계 메시지 목판화에 담아

그렇다면 스님이 목판화 작업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 스님은 작품을 통해 명상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 먹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걸을 때도 온전히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계속 망상을 하죠. 그렇게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죠. 제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살피 자신을 돌아보라고 대중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쌓아두면 무겁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나 자신임을 일깨워준다. 사랑도 스스로에 대한 연민도 선으로 귀의하면 한날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보면 분별의 세계를 넘어 사랑도 미움은 어떤 형태



열 여덟으로 가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쌓아두면 무겁다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달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

통척 스님의 목판화전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이 8월 8일까지 양평용문사 친환경농업박물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을 비롯해 등 52점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를 갖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의 흐름을 살피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늘 명상하며 살아갈 것을 권한다. 그래서 단순한 삶이 곧 도이며 깨달음이라고 강조한다. "명품 가구나 의류를 잘 관찰해 보면 디자인이 단순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단순해지면 명품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선이죠."

스님은 앞으로 통척목판화 미술관을 설립해 명상과 관화를 동시에 가르치는 작업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또 스님의 작품으로 표현해 가고자 한다. 한편, 스님은 이번 전시와 더불어 30년 동안의 작품을 기록한 책 <열여덟으로 가는 세상> 발간하기도 했다. (070)7715-379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찰라의 순간 담으면 또다른 역사가 된다

문화재전문 사진작가 오세윤의 '신라를 찾아서'展

석굴암십일면관세음보살 울동마애여래삼존입상 남산열암굴마애여래입상 등 불교문화유적을 사진에 담은 전시가 눈길을 끈다. 오세윤 사진전 '신라를 찾아서'가 7월 16일~21일 종로구 통의동 류가현에서 열렸다.



석굴암십일면관세음보살

작가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문과 재학시절 <삼국유사>를 강독하는 과정에서 옛 신라에 매료되었고, 그 흔적들을 찾기 위해 오로지 지도 하나 들고 답사를 다녔다.

사진을 찍을 때는 문화재와 대화를 나누는 듯하다고 말하는 오세윤 작가. 그는 대학 졸업후, 박물관의 의뢰로 유물과 문화재를 사진에 담은 일을 맡게 되면서 경주 <남산도록> 등 도판도록 168권 등에 참여했다. 사진을 찍다가 죽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앞으로도 문화재 사진을 찍어가며 경주의 모습을 담아나갈 것이다. 정혜숙 기자

# 삼광사 사진전 수상자 선정

금상에 조희주 씨...시상식은 7월 25일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제2회 부산의 아름다운 3명소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 금상은 조희주씨의 '삼광사의 꽃'이 선정됐으며, 은상은 홍정표씨의 '관육'과 윤성국씨의 '해수욕장의 해무', 그리고 동상 3명, 가작 5명, 특별상 12명, 입선 12명이 각각 선정됐다.

본상인 금상은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20만원의 상금과 상장

이 주어지며, 특별상에는 부산광역시장상, 구청장상, 언론사 사장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삼광사 지관전에서 개최하며, 이어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부산진구청, 부산시청, 수영구청, 해운대구청에서 순회 전시도 열린다. 한편, 삼광사는 시상식에 앞서 찾아가는 자비나눔 힐링봉사활동을 펼칠 '힐링광장' 발대식도 함께 진행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금상 수상작 조희주 씨의 '삼광사의 꽃'

#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